

# 브라질 브라질리아

글·사진 | 허응선 건강칼럼니스트



**남** 아메리카 대륙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브라질은 광활한 국토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 남한 면적의 86배에 이르는 거대한 땅에는 이과수, 폭포, 아바존강, 열정적인 삼바춤 등 흥미로운 것이 곳곳에 널려있다. 이런 자연 및 축제와 함께 도시 그 자체가 흥미 덩어리인 곳이 있으니 바로 브라질리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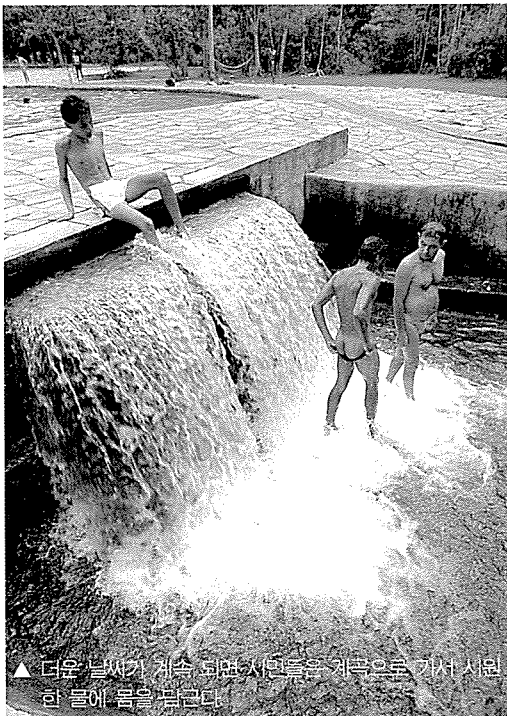
▲ 브라질리아는 비행기의 동체와 날개형태의 계획도시이다

초현대적인 건축물을 곳곳에 배치하여 미래 도시의 정답을 보여주는 듯한 브라질리아를 방문하면 마치 건축 박물관에 온 듯한 인상을 받는다. 유네스코는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과 문화가 많은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미래가 어울리는 독창적인 도시라고 하여 브라질리아를 198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해발 1,200m의 브라질 중앙고원에 위치한 브라질리아는 브라질의 수도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라는 평판을 받고 있으며 행정관서와 각국 대사관, 대규모의 상업 센터가 자리한다. 시의 모형은 항공기의 십자형 기체를 본떠 계획적으로 만든 인공도시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날개를 활짝 편 비행기 모습이다.

브라질리아 시내를 다니면 누구나 도시의 건축 모습이 기하학적으로 잘 꾸며졌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채게 된다. 마치 현대 첨단 건축물 전시장에 들어선 느낌이다. 특히 밤 풍경의 아름다움을 빼놓을 수 없다.

도시 전체 형상에서 비행기의 기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삼권광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



▲ 더운 날씨에 계속 호미 시민들은 계획대로 가서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근다

해 국회의사당, 최고재판소 등 입법·사법·행정의 주요 기관이 들어서 있다. 동체 부분에는 행정부의 기관들이, 양 날개 부분에는 주택 단지들이 건설되어 있다. 병원과 은행, 상가들은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여 비행기의 중앙에 해당하는 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시내에는 파라노아강을 이용한 인공호수가 적절히 놓여져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브라질리아 주변에는 9개 위성도시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거주하며 브라질리아로 출근한다. 위성도시는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고 있으며 노동력과 식료품을 브라질리아에 제공하는 공급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브라질리아 시내에는 거주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외교관이나 일부 부자들만 거주한다. 브라질리아 시내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즐길 술집도 마땅하지 않아 술을 마시려면 대개 위성도시로 찾아간다. 낮에는 브라질리아 시내에서 일하고 밤에는 위성도시로 돌아가는 근로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이 브라질리아를 방문하면 많은 영감을 얻을 것 같다. 현대 건축물의 박물관이라 일컬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햇불 혹은 가시관 모양의 대성당과 돔 보스코 성당 역시 아름다운 종교건물이다. 대성당 내부로 들어서면 엄청난 실내 공간에 누구나 놀란다. 높이 36m, 직경 60m인 대성당 내부에는 햇불 같은 거대한 조형물이 천장에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머리에 씌어졌던 가시 면류관의 상징이다. 3명의 천사상이 허공에 매달려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브라질리아 시민들이 가장 즐겨하는 운동은 축구이다. 운동장에서는 물론 동네 골목에서도 축구공을 차는 어린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브라질이 월드컵 대회에서 무려 5번이나 우승하고, 세계 축구계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축구가 생활화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브라질리아에는 국제적 경기를 위한 거대한 축구경기장은 물론 주택단지 공터에도 크고 작은 축구장이 있어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축구를 즐긴다.



▲ 대법원의 아경. 브라질리아에는 이처럼 기하학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상당히 많다.



▲ 브라질리아 시민들이 경건하게 여기는 대성당. 오스카 니마이어가 디자인한 아름다운 성당이다.

고 하며 모두들 축하해 준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국토에 1억 6,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브라질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주로 이 나라의 최대 상업도시인 상파울로에서 살고 있으며 의류 생산 및 판매업에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민 1세대는 의류 분야에서 많이 일했지만 2세대는 의사, 공무원, 회사원 등 보다 안정된 분야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7

삼바 음악은 축구와 더불어 브라질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 온 흑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서 시작된 삼바 음악은 점차 집단적인 춤과 음악으로 발전해 나갔다. 1917년 악보를 갖춘 삼바곡 '전화로'가 나오면서 삼바 음악은 좀더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삼바 음악은 이제는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매료시켜 새로운 삼바곡이 인기리에 계속 발표되고 있다.

미국이나 남미의 다른 나라를 여행해 보면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차별이 확연히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인종차별이 매우 적다. 백인과 결혼하는 흑인 숫자도 상당히 많다. 심지어는 백인 부부가 흑인을 출산하는 이상한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유는 그들 조상들이 혼혈을 하여 흑인 피가 백인 여성에게 남아 있어 생기는 일이다. 이런 경우 다른 나라에선 아내를 의심하기 쉽지만 브라질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 브라질의 국회의사당. 조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왼쪽이 상원 빌딩이고, 오른쪽이 하원빌딩이다.